

# 여름 이적 시장 발목 잡은 '재정 건전화 제도'

## 'K리그 잔류' 광주FC 2024시즌 결산

한국프로축구연맹은 재정 건전화 규정을 통해 K리그와 구단의 지속 가능성 확립을 도모하고 있다. 연맹이 목표하는 재정 건전화는 합리적인 예산 수립과 수입을 초과하지 않는 지출 유도, 장기적 관점에서의 지출 관리, 재무 자료의 투명성 및 신뢰성 확보, 지속 가능한 클럽 운영 유도 등이다.

규정에 따르면 구단이 연간 실제 지출한 선수비용은 해당 회계 기간 감사 보고서에 나타난 총 수익의 7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또 당기 표준 예산과 전기 표준 손익 계산서 등을 제출해 당기 예산을 심사 받고 선수비용의 상한선을 지정받아야 한다.

광주FC는 이 규정을 충족하지 못한 최초의 구단이 됐다. 올 시즌 개막을 앞두고 예산 심사가 부결된 것인데 연맹 재무위원회에 따르면 광주 사무처의 예상 수입이 과도하게 계상됐다.

광주는 한 번의 기회를 받았다. 규정에 따라 겨울 이적 시장에서부터 선수 등록이 금지되어야 하는 상황이었지만 이미 다수와 계약이 완료된 상황이었으며, 연맹은 선수들의 권리 보호를 위해 등록이 가능하도록 배려하며 개막 이후 합류한 브루노 올리베이라까지 극적으로 엔트리에 합류했다.

타계책을 찾을 수 있는 시간을 벌었지만 광주에게는 의미가 없었다. 추가 예산

### <5> 전력 보강 올스톱

연맹 재무위원회서 예산안 부결 추가 등록 기간까지 해결 실패 엄지성 영국행에도 영입 전무 김운호 준프로 계약은 역부족

심사를 위해 연맹이 현실적인 예산안을 요구했으나 수정안 역시 부결됐고, 당초 제출했던 예상 수입 역시 달성하지 못했다. 결국 광주는 여름 이적 시장에서 선수 영입을 진행할 수 없었다.

여름 이적 시장은 활용 폭이 넓지는 않지만 팀에 꼭 필요한 자원을 영입할 수 있는 기회다. 광주는 지난해 여름 이적 시장에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계약을 해지한 산드로 리마의 대체 자원으로 베카 미켈타제를 영입하며 활로를 모색하기도 했다.

올해 여름 이적 시장 역시 광주에게는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기회였다. 실제로 몇몇 선수들을 두고 타 구단의 관심이 이어졌고 광주는 트레이드 또는 이적을 검토하며 전력 보강을 노리고 있었다.

광주가 여름 이적 시장이 열리기 전인 17라운드까지 6위로 파이널A와 파이널B의 기로에 서있었기에 보강은 필수적이었다. 최전방 공격수와 수비형 미드필더의 보강도 필요했고 일부 외국인 선수의



광주FC 엄지성(왼쪽)이 지난 7월5일 광주시청 로비에서 열린 EFL 챔피언십 스완지 시티 AFC 이적 환송식에서 구단주인 강기정 광주시장으로부터 꽃다발을 받고 있다. **광주FC 제공**

교체도 필요한 시점이었다. 특히 이 시기 주축 자원이었던 엄지성이 EFL 챔피언십(잉글랜드 2부리그) 스완지 시티 AFC로 이적하며 여름 이적 시장에서의 보강은 더욱 절실했다. 광주는 박한빈, 최준혁과도 계약을 해지했고 알렉스 포포비치는 호주 A리그 시드니 FC로 임대 보내 지출을 줄였다.

하지만 영입 금지 조치로 광주는 새 얼굴을 찾을 수 없었다. 트레이드는 물론 임대도 불가능했고, 군대에서 돌아올 선수

는 없었다. 김포FC로 임대를 보낸 조성권도 선불리 복귀시킬 수 없었다.

이때 보강이 유일하게 가능한 방법이 준프로 계약이었다. 광주는 금호고 소속의 김운호와 준프로 계약을 맺었지만 고등학생인 그가 위기의 광주를 일으키기에는 짐이 너무 무거웠고, 결국 1경기 출장에 그치며 힘을 실지 못했다.

결국 광주는 변화를 주는데 실패하며 파이널B로 떨어져 잔류 전쟁을 치러야 했다. 여름 이적 시장이 열리기 직전까지 7

승 1무 9패(승점 22)를 기록했던 광주는 이후 7승 4무 10패(승점 25)에 그쳤다.

그럼에도 광주는 최종 순위 9위로 잔류에 성공했지만 내년에도 적극적 투자가 어렵다는 점은 위험 요소다. 광주는 이번 겨울 이적 시장에서 연맹이 설정하는 비용 상한선에 맞춰 선수를 구성해야 하는데 현재 확보된 광주시 보조금 약 110억원과 광주은행 후원금 10억원으로 계산하면 70억~80억원 선이 될 전망이다.

한규빈 기자 gyubin.han@jnilbo.com

## 페퍼저축은행, 구단 첫 시즌 6승 도전 나선다



페퍼저축은행 선수들이 지난 22일 광주 페퍼스타디움에서 열린 IBK기업은행과 도드람 2024-2025 V-리그 여자부 3라운드에서 득점에 성공한 뒤 기뻐하고 있다. **한국배구연맹 제공**

### 26일 정관장과 3라운드 맞대결

페퍼저축은행 AI페퍼스가 정관장을 상대로 구단 최초 시즌 6승에 도전한다.

페퍼저축은행은 오는 26일 광주 페퍼스타디움에서 정관장과 도드람 2024-2025 V-리그 여자부 3라운드 경기를 갖는다.

페퍼저축은행은 지난 22일 IBK기업은행과의 홈 경기에서 세트 스코어 1-3(24-26, 22-25, 25-20, 23-25)으로 지며 2연패에 빠졌다.

페퍼저축은행은 외국인 선수 테일러 프리카노가 21득점, 박정아가 14득점, 이한

비가 13득점으로 분투했으나 기업은행의 주포 빅토리아 덴착과 이주아, 육서영의 공격력을 버텨내기엔 역부족이었다.

이로써 페퍼저축은행은 5승11패(승점 16)로 4위 기업은행(10승6패·승점 28)에 승점 12점 차 뒤진 5위에 위치하고 있다.

페퍼저축은행은 비록 2연패를 기록 중이지만 올시즌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2021-2022시즌 여자부 막내 구단으로 합류한 페퍼저축은행은 세 시즌 연속 최하위를 기록했다. 첫 해 3승28패 승점 11, 2022-2023시즌은 5승31패 승점 14, 2023-2024시즌에도 5승31패 승점 17로 점점 나아지는 모습을 보였으나 '만년 꼴찌' 신세였다.

하지만 올시즌은 3라운드 중반에 벌써

5승을 쌓을 만큼 전력 상승을 이뤘 창단 최다인 6승을 넘어 두 자릿수 승수까지 바라볼 수 있게 됐다.

이를 위해서는 정관장을 상대로 반드시 승리가 필요하다.

페퍼저축은행은 정관장과 올 시즌 상대전적이 1승1패다. 1라운드 맞대결에서 2-3 패배로 아쉬움을 삼켰지만 2라운드에선 3-1로 설욕했다.

두 차례 맞대결에서 밀리지 않는 경기를 펼친 만큼 이번 경기에서 자신감을 갖고 임한다면 좋은 결과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정관장이 지난 11월 27일 페퍼저축은행에 패한 뒤 6연승을 거두는 상승세를 타고 있는 만큼 첫 세트를 따내 분위기를 가져오는 게 관건이다.

최동환 기자

## 남구반다비체육센터, 체육시설 안전경영 인증 획득

### 반다비체육센터 전국 최초

광주시 남구반다비체육센터가 국민체육진흥공단 '체육시설 안전경영 인증(KSP045001)'을 받았다.

남구반다비체육센터는 지난 18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파크텔에서 열린 2024년 체육시설 안전경영 인증 수여식에서 안전경영 인증서와 인증현판을 받았다고 23일 밝혔다.

'체육시설 안전경영 인증제'는 체육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시설과 그 부대시설(이하 체육시설)의 자율적인 안전

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안전관리 표준모델의 발굴·확산 등을 위해 시설별 설치 기준 및 안전보건 관리 활동에 대한 경영이 우수한 체육 시설에 대해 전문가의 심의를 통해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다.

올해 공단이 주관한 체육시설 안전경영 인증(KSP045001)은 안전경영 관리체계 10개 항목과 안전 의식도 등 9개 항목으로 이뤄진 총 4개 분야로 평가됐다. 심의 결과 인증 시설로 최종 확정된 시설기관은 전국 42개 신청 기관 중 남구반다비체육센터를 포함한 7개 기관이다.

남구반다비체육센터는 체육시설 안전

경영 관리체계분야 안전위생시설 및 활동수준분야, 관계자 안전의식도 분야에서 노력을 인정받아 반다비체육센터 최초로 인증을 획득했다.

남구반다비체육센터는 이번 인증 획득에 따라 장애인체육 안전관리에 혁신적인 사례와 시스템 구축으로 이용객 안전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신정훈 남구반다비체육센터장(송원대 교수)은 "4월 정식 개관 이후 프로그램 개발 보급 및 체육시설안전경영인증증을 위한 직원 노력해온 결과"라며 "반다비체육센터 안전경영인증증 통한 안전 모범사례



광주시 남구반다비체육센터 신정훈 센터장과 직원들이 지난 18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파크텔에서 열린 2024년 체육시설 안전경영 인증 수여식에서 안전 경영 인증서와 인증현판을 수여받고 있다. **남구반다비체육센터 제공**

와 설립취지에 맞게 장애인 비장애인 함께 어울림 장소에 더욱더 안전하고, 시민들이 안심하고 체육활동을 즐길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동환 기자